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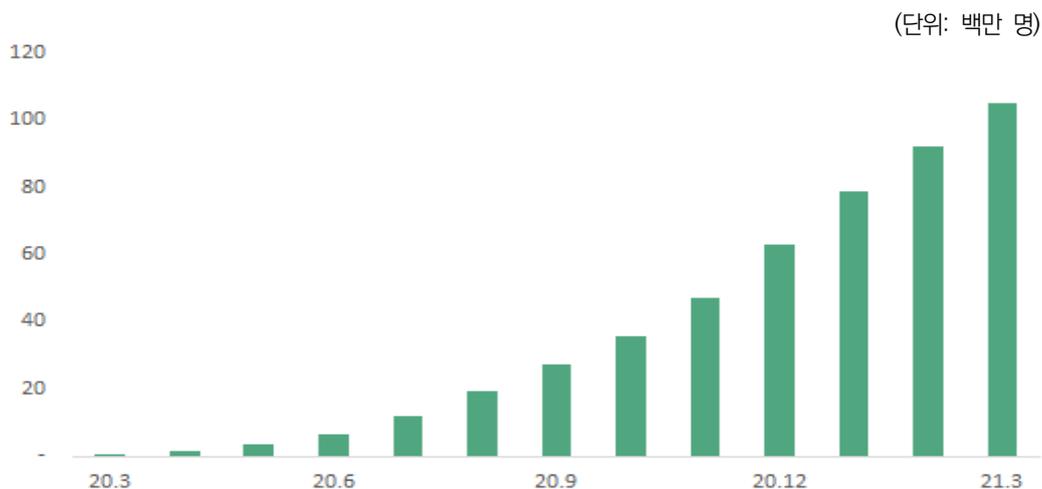
박은빈 연구원

요약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코로나19에 대한 각 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7%에 달하던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이후 세계 각 국의 대응력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음¹⁾
 - 2021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 명 이상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그림 1) 참조)

〈그림 1〉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



주: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WHO의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요 언론(Financial Times, The Washington Post, CNN 등)에서 인용한 Worldometer의 코로나19 완치자 통계를 활용함
 자료: Worldometers

1)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https://covid19.who.int/>)

- 그러나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medical history)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함²⁾
 -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함³⁾
 - 영국 생명보험사인 LV=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으며, Aviva PLC와 Prudential 또한 과거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거나 유사 증상을 겪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있음⁴⁾

-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임
 -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려움⁵⁾
 - 그러나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으며⁶⁾,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음
 - 또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완치자에 대한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완치자의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⁷⁾

-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⁸⁾
 - 2021년 3월 말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는 9만 명 이상으로, 완치자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와 차별 금지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힘⁹⁾

2) Bloomberg(2020. 12. 2), "Covid Unknowns Leave Survivors Fearing Life Insurance Rejection"

3) 아시아경제(2021. 1. 22), "코로나 완치자 6만 명... 보험가입 1년 더 기다리라고?"

4) Reuters(2021. 1. 25), "Global life insurers impose restrictions, worried about long-term pandemic risks"

5) 한국보험신문(2020. 9. 21), "코로나19 감염 이력 있으면 보험가입 어려워"

6) Financial Times(2020. 6. 22), "Insurers are delaying life cover over covid-19 concerns"

7) The Wall Street Journal(2020. 12. 27), "Coronavirus Stigma Lingers Long After Disease Fades"

8)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21. 2. 28), "CFA urges NAIC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make reasonable underwriting rules for those who had covid"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3. 17),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